

대통령을 人氣로 뽑아선 안된다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연말경까지, 최대의 정치행사인 대선정국으로 채워질 것인데, 대통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누구나 묻고 있는 듯하다. 민주화된 체제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우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듯 언론에서는 후보경선 과정을 쉬이 ‘흥행’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마치 연예인의 인기를 가름하는 행사처럼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정치행사가 ‘콘서트’라는 말로 표현되어도 덤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오늘의 정치감각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시민의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보편적이며 직접적이며 비밀이어야 하는 투표권이 여론조사로 대체되거나 모바일투표로 채워지는 판이 벌어지는데도 별 이의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럴 바에는 굳이 투표소에 나갈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그야말로 콘서트의 박수소리 강도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회학의 창시자인 콩트가 군사적 지휘자와 시민사회의 지도자를 구분하여 정의를 내린 일이 있는데, 지휘자는 명령으로 부하를 다스리는 것이며 지도자는 멤버들을 이끄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겸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이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최고 권력의 보유자이기도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를 이끌어가는 향도이기도 하다. 명령과 지도를 함께 해야 하는 최고의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파리한 마리를 죽이지 못하는 심성을 가졌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질을 요하는 임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습속과 법률에 따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질이 요청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자질을 구유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험과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힘의 행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인기 있는 연예인을 뽑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의 살림이 거덜나고 있는데도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든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인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운동구경하러 나간다든가, 깡판을 쳐도 굴러만 가면 된다든가, 국가를 기업으로 여겨 경제만 챙기면 된다든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유권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 딱히 누가 이런 교훈을 구유하고 있는 후보인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검증될 것이다. 그 검증을 위해서 문제되는 국정과제의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체제의 정당성과 정치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체제전복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과제는 무엇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다.

둘째로, 신분사회가 아닌 평등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경쟁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구조적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글

다. 그러자면 성공과 그에 대한 의식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산업사회에서도 완전한 평등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득하고 그 다양성과 분화현상에서 오는 신분과 지위의 불평등을 수용하도록 의식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정부의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구를 세종시에 옮긴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연대의 정부기능과 기구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러저리 난도질을 당하여 새로운 사회조건에 대응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독려체제에서 이제는 이른 바 세계화에도 부응하는 서비스 중심체제로 확실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자면 관료조직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고 철저한 예산관리를 통하여 자행되고 있는 엄청난 낭비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국회라는 기구는 원래 돈주머니를 관장하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인데, 한국의 국회처럼 결산을 형식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에 더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몰두하는 사정이라면 부득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시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평등사회에서 교육은 모든 것에 앞서서 신분획득의 최우선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인적 낭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모두 아는 일이다. 교육의 문제는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준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사회의 기능분화에 알맞은 인력양성을 위해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교육기관이 불량인력 대량생산공장처럼 되어 온 것을 더 이상 방유하면 가계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학교에 교육을 되돌려서 학원이 필요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상으로 열거한 문제는 물론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여간한 의지와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시간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가의 의문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가 부적절한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의 일단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체제 정당성 - 경쟁사회 를 확립 정부기능 재조정 - 부패척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두 가지를 확립하지 못하면 위기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나라가 불투명한

과 같은 무질서나 비교의식에서 오는 불만 등에 질서를 다시 부여하고 생활의 수준과 질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

2012 대한언론상 수상자 결정

■ 논설 논평 부문

이병규 문화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

■ 기획취재 부문

심수련 KBS 시사제작 2부 기자

이대희 C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이균형·임상훈 전북 CBS 보도제작국 기자

■ 특별공로

이성준 한국언론 진흥재단 이사장

시상식: 10월 16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9월 25일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일보 이병규 발행인 겸 편집인(논설 논평부문)과 KBS 시사제작 2부 심수련 기자, CBS 보도국 사회부 이대희 기자, 전북 CBS 보도제작국 이균형·임상훈 기자(이상기획취재부문)를 제2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언론인회

는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을 대한언론상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10월 16일(화) 오후 5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5면에 공적사항 · 심사평

대통령은 나라부터 지켜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국정지표를 압축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나는 “우선 나라부터 지키자”와 “백성을 살리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하려 한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는 후보라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은 나라가 튼튼하게 바로서야 풀어나갈 수 있다. 국가안보는 모든 과제 해결의 선제 조건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렵게 얻은 해방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고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지켜냈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선진국으로 발전시켰으며 혼란과 투쟁을 거쳐 민주주의를 키워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데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벌이는 함겨루기 속에서 자칫하면 대한제국처럼 강대국 정책의 제물이 되어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한의 망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견명찰(遠見明察)의 안목으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묶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국민 모두가 도전을 자각하게 일깨우고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서로 혈투지 않고 우선 나라부터 지키자고 나서게 만들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들어서서 나라를 이끌게 만들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 튼튼한 자주국가,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네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다. 이것을 다시 압축하면 강대국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된다. 통일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다. 물론 성숙된 민주주의도 ‘행복의 조건’이다.

대한민국 전복기도 여전

이렇게 가야 할 길이 정해졌으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길을 찾는 일이 당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누가 이러한 안목과 의

지, 그리고 지도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할 일이다.

나라 지키기와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대한민국을 허물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집요한 공세와 이에 호응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을 돕는 세력들의 나라 흔들기를 막는 일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해왔다. 60년 전에 시도했던 무력해방계획이 실패한 후 꾸준히 군사력을 다시 건설하여 현재 10여개의 핵폭탄과 120만의 정규군을 갖추어 놓고 있다. 한국군의 방어 능력을 압도할 수 있을 때면 언제라도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는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 환경을 악용한 정치전도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다. 친북 반정부 세력을 규합하여 정당을 만들고 합법, 비합법 투쟁을 동시에 펴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집요한 투쟁을 펴고 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방해하는 모든 노력을 체계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북한은 대외 정책에서도 한국을 우방국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펴고 있다. 한국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여 미국이 한국 지원을 포기하도록 투쟁을 벌이게 하고 일본, 서유럽 등 한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우방국과의 갈등을 빚게 하는 공작도 펴고 있다. 한미 FTA 반대투쟁, 한국과 우방국과의 무역 마찰을 확대시켜 한국의 경제 환경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안보의식 그대로 유지돼야

현재 한국은 북한이 무력공격 시도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념을 같이 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억제력을 보완하고 있으며 독자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방계획(DRP 12·30)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목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얻기 위한 안보외교를 꾸준히 펴나가고 있다.

특별기고



이상우

- 분회 회우
- 전 조선일보기자
- 전 한림대총장
- 현 신아시아연구소 소장

새로 국정운영을 맡게 될 다음 정부가 지금과 같은 안보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억제전략 구축사업과 안보외교를 지속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지키기’는 걱정 없이 이루어질 것이나 이 기초를 흔드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추구하게 되면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외교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 이익을 가진 사회주의 강대국 중국과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을 서로 존중하기로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로 새로 국정운영을 맡게 될 다음 정부가 지금과 같은 안보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억제전략 구축사업과 안보외교를 지속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지키기’는 걱정 없이 이루어질 것이나 이 기초를 흔드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추구하게 되면 위기를 맞게 된다.

중북세력 대한민국 흔들기 차단 자유민주이념 지킨 통일 이뤄야

북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길은 통일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동포인 2천3백만의 북한 인민의 행복을 파괴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북한 동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통일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북한 정상국가 돼야 지원

우리는 북한정권과의 타협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북한정권과의 공존체제를 안정화하여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1차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도, 그리고 각계각층의 실무협상도 펼쳐 왔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등의 합의도 이끌어냈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법규를 존중하고 우리와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변신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와 맺은 합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남반부해방의 꿈을 접고 우리와 공생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국가발전 노력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공존공영하기로 결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바른 행동은 격려하고 잘못된 행동은 응징하는 ‘길들이기’ 전략이 불가피하다. 혐의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약속을 지키는 정상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민족적 과제이나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구상도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 지켜지는 통일한국의 성취다. 기본 이념을 포기한 통일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김일성주의라는 시대착오적 독재체제를 실현하려는 북한식 통일은 민족통일이 아니라 민족자멸이다.

흔히 평화통일을 앞세우는 정치 지도자 중에는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 건설도 거부하고 북한과의 ‘타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바꾸는 잘못된 접근이다. 평화통일 원칙은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력불사용의 원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무력사용불허용의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2천년된 명구를 잘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바른 판단 기대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리라 본다. 점차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초강대국 중국이 눈앞에 있고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 받는 일본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방국 미국이 국내 문제, 외교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주변 환경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지도력을 펴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지키기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된다.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고르게 행복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지키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배가 난파하면 그 배속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다. 우리 국민들이 심사숙고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 ‘역사의 승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가 국가장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게 인도해주실 것을 하늘에 빈다. [필자]

한국 대선 ‘大國’면모 보여야 할때

양력으로 끝에 오는 숫자가 2나 7이 되는 연말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특파원들이 정신 없을 정도로 바빠진다. 그 대가로는 기자로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경악과 감동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외신 기자에 있어서도 그 이상의 재미있는 취재는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경험이 된다.

서로 다른 이념이나 주장을 거듭해 온 거물 정치보스들끼리 투표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손을 잡는가 하면, 연대를 표명했던 후보의 약속은 투표일 전날 밤 뒤집혀 버리기도 한다. 틀림없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 한국에서는 태연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한류드라마를 압도하는 듯한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나라의 기자이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변화’이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현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즉 뉴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격렬한 변화에 있어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국의 대선은, 무조건 무척이나 재미있는 것이다.

그런 바쁘고도 재미있는 계절이 다시 5년 만에 찾아 왔다. 운 좋게도 나는 1997년에 서울특파원으로서, 2002년에는 도쿄본사의 한반도 담당 데스크로서 한국 대선과는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이런 인연을 맺어 온 나는, 이번 대선을 특별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바로 나는 ‘한국의 대국화(大國化)’를 이루어내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일종의 겸허함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람들 중에는 자기나라를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라 밖으로 한걸음 나가보면, 한국은

주한 외국언론인이 본 시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국임에 틀림없다.

단지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맹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나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그것들을 성공리에 끝마쳤

특별기고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다로 표현하면 ‘안이한(甘え·아마에)’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국인 것, 혹은 대국이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단한 명예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지고, 사회는 문화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러나 좋은 일

나라발전 불구 정치권 구태 한심 네거티브 공방 지양, 미래지향을

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온 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따듯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정치보다 더 대단한 기세는 경제의 측면이다. 자국브랜드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지구 건너편 곳곳까지 누비며 달리고 있는 나라가 대국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K팝이 흐르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빛나는 작금의 모습은, 한국국민의 피와 땀방울의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었다. 그 사실을 이제 도상국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어깨를 겨누고 있는 선진국도 높이 평가하며 다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새로운 대국(大國) 한국이 서투른(적어도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것이 있다. 오해를 무릅쓰고, 그것을 한마

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엄격한 규율이나 책임, 의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때는 대국 저럴 때는 도상국’이라는 이중잣대는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친구들은 ‘국가로서는 대국이라도, 개개인의 국민은 대국으로서의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말도 한다.

그렇지도 모르겠다. 현대의 번영은, 어딘가 CO₂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와 닮아 있는 곳이 있다. 일찍이 선진국이 마음껏 개발을 해나간 결과인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규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도상국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재의 국제정세가 계속되는 한 가까운 장래에 한국경제만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은 우선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와중에도, 금전이나 물질적 풍요로움 이외의 방법으로 다음 지도자는 한국 국민에게 대국인 것을 실감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커져 버린 덩치에 마음이나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묻는다면, 나라는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언젠가 어디에서 들은 것과 같은 구태의연한 금전수수의혹이나 부정한 야합 같은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범죄는 나라의 크기나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도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부정은 언제까지 흘러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작년 가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보궐선거에서 시작된 장대한 ‘정치의 계절’은, 연말 대통령 선거로 피날레를 맞이한다. 어떤 개인이나 진영도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소국적인 ‘안이한(甘え·아마에) 마음’, 즉 ‘이 정도는 관찮겠지. 모두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한국을 이끌 자격은 없다.

선진화, 대국화로 향하는 끝없는 노력을 해온 한국이야말로 이제 이 톱니바퀴를 멈출 수는 없다. ‘그런 귀찮은 것이라면 대국이 되고 싶지 않다’는 무책임함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대선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먼지로 뒤범벅된 네거티브 공격을 끝내고, 더 나아가 대국 한국의 내일을 의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치열한 경쟁을 보고 싶다. [4]

본회 가을철 문화탐방 담양 유적지로 갑니다

대한언론인회는 올 가을 문화탐방지로 전남 담양을 선정했습니다. 담양은 인재의 고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름난 유적들과 한반도의 대발로 유명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은 10월 18일 목요일 하루만 받습니다. 선착순 80명)

-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요일) 오전 7시 프레스센터 정문출발
- 탐방코스 : 서울 출발 - 담양소쇄원 - 취가정 환벽당 식영정 답사 - 가사문학관 -서울도착(오후 9시경)
- 연 락 처 : (02)732-4797~8

본회 산악회 가을산행 오대산 소금강 갑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명승지 제1호로 지정된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으로 가을산행을 떠납니다. 가을 단풍과 절경의 계곡이 어우러진 소금강 산행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산행일시 : 2012년 10월 19일(금요일) 오전 7시
- 산 행 지 : 오대산 노인봉 소금강 (소금강분소~만물상왕복 계곡산행·약 4시간 소요)
-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정문 앞
- 회 비 : 2만원(주문진행에서 뒤풀이)
- 준 비 물 : 간식 식수 추계등산장비
- 연락문의 : 010-7276-6211(정운종) 010-3855-8624(이상호) 010-8461-5349(강진형) 010-2691-0084(나용경)

대선후보공약 ‘경제’가 핵심돼야

주한 외국언론인이 본 시각

특별기고



에반 램스태드

· 월 스트리트 저널지
한국특파원

못된 프레임(틀)에 놓고 있다. 수십 년 간 그들은 경제정책을 복지와 성장 간에 어느 것을 택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국은 두 가지 다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정책이 공정성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

것도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3-2018년 기간 동안 한국이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밝히기 보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집권 시 행태(actions)들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참으로 불

은 특히 대통령 후보자들 같은 중요한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상례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받은 기부금은 그들의 연설만큼이나 중요한 캠페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두 번째 변화는 정치적 연설에 대한 제한을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후보자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후보자들이 출마 공개를 하기도 전에 수 주 또는 수 개월간 잠재적 투표권자들을 방문하고 연설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후보자들이 광고를 할 경우에 같은 크기와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캠페인 광고나 연설 규정은 뉴스 미디어에도 확장되고 있다. 언론 매체들은 뉴스가 되는 후보자가 누구이든 간에 또는 그 날의 뉴스가 어느 것이 중요하건 간에 불문하고 같은 크기의 사진을 게재해야만 한다.

지난 수년 간, 우리는 일반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이나 트위터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캠페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새 규정을 만든 것을 보아 왔다. 이들 새 규정 가운데 일부 규정은 법률적 결정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정들은 언론 자유를 수용하는 국가에선 모순되는 것이다. 모든 후보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건 또 언제이든 간에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도록 하자. 아이디어들이 날도록 하자! [2]

과거사 공방에 매달리면 불행 초래 성장-복지 함께 추구할 정책 필요

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박정희나 노무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미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 국가들이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경험했을 때 만큼 부유하지 않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경제적 논쟁을 잘

쟁을 해야 한다.

한국에는 개선해야 할 두 가지 정치적 특징이 있다. 그 첫째는 캠페인 선거자금 문제다. 선거자금 조달에 있어선 투명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령 미국 선거에 있어선 기부금은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만 한다.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기부금엔 한도가 있으며 연방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어 있다. 미국의 뉴스 미디어들

리비아주재 미국대사 J. 크리스토퍼 스티븐스를 비롯한 4명의 미 외교관이 중동에 야기된 반미물결에 휩싸여 죽었다. 스티븐스는 지난 9월 11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북쪽 뱅가지의 병원 시설을 돕기 위해 그쪽 영사관에 갔다가 밤중에 반미데모대들이 쏜 로켓포에 맞아 숨졌다.

비록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평화를 돕기 위해 파견된 사신은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흑외교관신분으로 위장한 정보원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현지에서 체포되더라도 대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외교관들은 세계 도처에서 무수히 죽음을 맞았다. 스티븐스처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책 때문에 현지에서 살해된 외교관도 있고 콜레라가 만연된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가 콜레라에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외교행낭을 제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불어난 강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죽은 외교관도 있다.

미국 국무부 현관 안쪽의 양쪽 기둥에는 약간 직직해 보이는 동판이 각각 붙어 있는데 현직에서 사망한 외교관 중 ‘영웅적 활동을 하다가 숨졌거나 비

극적인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은 자(on duty lost their lives under heroic or tragic circumstances)’를 선정해 그 이름을 백백이 새겨놓았다. 국무부에 들어서면 200개의 세계만국기가 펼쳐거리는 장엄함이나 삼엄한 경비병의 위력에 놀려 동판을 쉽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직원들은 조석으로 이 기둥을 눈 안에 두고 다닌다.

1994년 현재 왼쪽 기둥동판에 85명의 이름이, 그리고 오른쪽 기둥동판에 81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미국 외교사 2백년을 따지면 1년에 한명 꼴의 이름이 이 명판에 올라간 셈이다. 첫



정일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정치학 박사

명패는 1780년 바다에서 실종된 William Pairfray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 희생된 외교관으로는 1951년 부산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Robert Lee Mikels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판에 새길 이름은 국무부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 외교관, 언론인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외교협회가 현지에서

사망한 외교관중 자체조사를 통해 동판에 이름을 새길만한 이름을 찾아내 백악관과 국무부의 내부결재를 받아 정한다. 스티븐스대사의 이름도 아마 이 동판에 새겨질 것이다.

죽음을 일상적 담보로 삼고 살아가는

동판에 새겨지는 외교관 이름

군인들의 본부인 펜타곤(미국방부)은 바로 알링톤 국립묘지를 끼고 있어 펜타곤을 들고나는 사람이면 멀지 않은 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묘비를 일상적으로 보게 된다. “군인은 전쟁에 탄약과 침낭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갈 관(棺)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연설한 맥아더의 말을 생각해 한다.

나라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감당하다가 전사하거나 ‘영웅적 활동이나 매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바친다는 것은 죽음의 한계를 넘는 위대한 삶의 지속이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사는 것이 미국의 힘인지 모른다.

우리는 죽음과 삶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전사자의 이름이나 영웅들의 동상은 기념관이나 공원 같은 특별한 장소에만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죽음의 평가를 하는 것도 냉정하지가 않다.

국가임무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한 영웅들을 공정하게 추적하여 건물에 작은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늘 볼 수 있게 한다면 산 사람들의 용기와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2012 대한언론상 영광의 얼굴

공적요지

■ 논설 논평부문 : 이병규 문화일보 발행인겸 편집인

‘중북세력과의 전쟁’ 선포 결단

이병규 문화일보 발행인겸 편집인은 2011년 11월 1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은 계속돼야 한다’ 제하의 사설을 싣고 언론사상 처음으로 ‘중북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이익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일보는 이 같은 입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설및 기명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북세력퇴치를 주창해왔다. 이러한 문화일보의 거사적 중북세력퇴치 운동은 국가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이념갈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극심한 현실에서 볼 때 매우 용기 있고 고귀한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특별공로상 :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언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공로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2010년 1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언론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뉴스미디어 콘텐츠 품질 제고 사업, 신문 읽기 문화진흥 사업, 독자 신



뢰도 제고 관련 사업, 신문 물류비용 절감 등 많은 언론 관련 사업을 전개하여 한국언론의 진흥 발전과 언론의 공적, 사회적 책임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평

■ 기획 취재부문 : 심수련 KBS 시사제작2부 기자

‘대한민국50대보고서’ 사회적 공감대 이뤄

KBS 시사제작2부 심수련기자는 ‘대한민국 50대보고서 희망 마저 가난하다’라는 주제로 퇴직이후 개개인의 삶을 통해 고통으로 내 맡겨진 퇴직 쇼크의 아픔을 생생히 추적 취재 보도했다.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충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



한 과제에 대해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중산층의 빈곤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제21회 대한언론상은 심사위원들의 난상토론 끝에 논설부문 1명, 기획취재부문 4명, 특별공로부문 1명 등 모두 6명에게 돌아갔다.

문화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중북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논설 논평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옹호에 결연히



김성배 심사위원장

·대한 언론인회 부회장
·전 KBS 보도제작국장

수련 기자(KBS 시사제작 2부)는 심층 보도를 통해 노령화 사회에서의 퇴직 쇼크와 고통을 적나라하게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노력이 돋보였다.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은 2010년 취임 이래 3년 동

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언론 사업을 전개하여 한국 언론의 진흥 발전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기여한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정권 교체기로서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이 분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서 모든 언론인들의 사명감 넘치는 활동이 요구되며 또한 많은 언론상 수상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기획 취재부문 : 이대희 CBS 보도국 사회부기자

서울구청 공무원 채용비리 고발

CBS 사회부 이대희 기자는 서울 구청 기능직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심층 취재 보도하여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이른바 ‘빨리 가자 공정한하리라’ 생각했던 공무원 채용에서까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다. 특히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도봉은



평 중랑 금천구에서 이런 현상이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보도로 인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는 각 구청에 공문을 하달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시도로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이 2012 대한언론상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위원 명단 (가나다순)

- ... 위원장 : 김성배 (본회·부회장 전KBS 보도제작국장)
- ... 위 원 : 문명호 (본회·주필·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 박 실 (본회 이사·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성낙오 (본회 편집위원장·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대우)
- 이형균 (본회 편집고문·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 ... 간 사 : 정운중 (본회 상임이사)

■ 기획 취재부문 : 이균형·임상훈 전북CBS 보도제작국 기자

군수선거 비리추적 지역사회 경종

전북CBS 보도제작국 이균형(사진左)임상훈 기자(사진右)는 ‘현직 군수와 후보들, 브로커에 줄줄이 노예각서’ 기획 보도를 통해 임실군수의 잇단 낙마의 배경에는 당선을 돕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보장하는 각서를 받아낸 브로커와 이를 작성한 군수 후보와 군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 임실군의 자정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언론보도가 지역의 오래된 부정을 파헤침과 더불어



군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더 이상 이런 부정이 자리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트루먼 - 맥아더를 다시 생각한다

사실 한국인이자라면 북한이 남침한 6·25전쟁에 미군을 파병해 도운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 대통령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 시킨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이 역사적 두 인물의 족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두 인물의 한국에 대한 기여와 업적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필자는 두 인물에 대해 깊은 연구가 없으며 다만 그동안 접한 두 인물과 당시 미국 대외정책 기록, 회고록 중 몇몇 대목을 뽑아 소개하려 한다.

트루먼대통령 회고록과 같은 ‘격동의 시대 : 해리 S 트루먼 시대 1949-1953’ (Tumultuous Years: The Presidency of Harry S Truman, Robert J. Donovan 저)에 의하면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이 일어 난 1950년 6월 24일 (워싱턴 시간), 트루먼대통령은 고향인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주말 휴가차 와 있었다. 트루먼이 그 날 저녁, 부인, 딸과 저녁을 막 끝낸 9시20분, 워싱턴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 공산주의의 남침전, 한반도는 미국 방위선 밖 이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애치슨은 “대통령 각하, 대단히 심각한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전면 침공했다는 무초대사의 긴급 전문입니다.” 애치슨은 긴급 보고와 함께 즉시 이 문제를 다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트루먼은 즉석에서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애치슨에게 그날 밤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야간비행의 위험성과 한반도 상황의 불투명성을 들어 대통령의 야간비행을 만류했다. 트루먼은 만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블레어 하우스(백악관과 가까운 영빈관)관계 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워싱턴 귀환을 앞 둔 트루먼의 심정은 딸 마가렛이 일기에 기록한 “북한 공산주의의 남한 침공에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고 말한 트루먼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트루먼이 워싱턴으로 비행하고 있는 동안 워싱턴과 유엔에선 긴급조치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한반도에서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미국 결의안을 토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소련대표 야콥 말리크는 계속 안보리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선 1월 10일, 말리크는 안보리가 자유중국 축출과 중공의 대표권 인정을 거부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것이다. 말리크는 계속해 안보리회의를 보이콧했다. 문제는 미국 결의안이 상정된 순간 그가 회의장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말리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6시 직전, 미국의 결의안은 9대0으로 채택됐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의 무력공격은 평화에 대한 침해’이며 ‘적대행위의 즉시 중지’와 북한군

의 ‘38선 철수’, ‘유엔 전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한 모든 지원 유엔제공’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한편 25일 블레어 하우스 고위 대책회의에선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에 탄약 등 군수품 즉각 지원, 미 7함대의 대만해협 항해, 극동지구 소련 전 공군기지 파괴



문명호

·본회 주필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으로 실체화 되었으며 이어 유럽경제부흥계획인 ‘마셜 플랜’이 나오고 ‘봉쇄정책’은 냉전시대를 통해 오랫동안 미국의 대공산주의 정책이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19세기부터 지속해 온 고립주의 정책, 즉 ‘먼로 독트린’을 포기하게 되었다.

독일 패망으로 베를린이 미·영·불·소련 4

해 작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군산과 동해안 양동작전을 펼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이 상륙작전 성공으로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퇴각시킬 수 있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이 시작된 후 1951년 트루먼정부와 연합국은 종전대로 38도 선에 기초한 휴전을 결정했다. 맥아더장군은 휴전 정책에 강력히 반대했다. 맥아더는 중국 지역까지의 확전과 중국연안 봉쇄작전을 주장했다. 그의 신념은 의회에서 밝힌 대로 “전쟁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 뿐 이라는 것이었다. 맥아더는 4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제한시킨 트루먼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공화당 의회 대변인 조셉 마틴 의원에게 보냈다. 마틴은 맥아더의 서한을 의회에서 발표했다. 맥아더는 또 위임된 권한 없이 중공군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맥아더장군의 서한이 공표된 다음 날 4월 6일, 트루먼대통령은 맥아더장군 문제 처리를 논의할 관계 장관과 군 수뇌회의를 소집했다. 국방장관 조지 마셜, 국무장관 딘 애치슨, 합참의장 오마 브래들리 등이 참석했다. 마셜은 1,2차 세계 전쟁의 영웅을 전쟁 중 해임한다는데 신중론을 폈다. 그 다음 날 백악관 회의가 다시 소집됐고 마셜은 교체에 동의했다. 대통령은 합참회의를 열어 군사적 측면을 논의하도록 했다. 8일 합참회의는 맥아더의 항명을 들어 그를 교체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4월 9일 트루먼은 맥아더장군을 극동군 사령관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트루먼은 귀국하는 맥아더를 최고의 군의전으로 영접하도록 지시했으며 귀국일을 공휴일로 정해 워싱턴 거리에서 환영 인파가 노장군을 맞았다. 노장군은 그를 위해 마련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 유명한 이임사를 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사한 미군 가운덴 미국 선교사 1세대로 평양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한 윌리엄 쇼우1세(쇼우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복제도를 건의했다.)의 아들 쇼우2세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2차대전 참전 후 모교인 하버드대 대학원으로 돌아 가 재학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내가 태어난 고향 한국을 지켜야 한다”며 해군을 지원, 해군 장교로 상륙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

트루먼과 맥아더 두 인물은 출신 배경과 성격이 대조가 된다. 트루먼은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 라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만 마치고 부친을 도와 농부일, 소상공점 경영을 하다 야학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군 재판소 판사,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후 부통령,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트루먼은 20세기 미국 대통령중 유일하게 대학을 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맥아더 사령관.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

6·25참전 결단 - 인천상륙작전 성공 한반도 공산화 막은 공 길이 기려야

계획 수립 등을 결정했다. 트루먼과 각료들은 북한의 침략행동은 곧 ‘소련의 행동’이라고 믿었다. 트루먼은 한국이 무너진다면 곧 유엔과 유엔 집단 안보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려했다. 맥아더사령관도 한국으로 날아 와 이승만대통령을 만나고 전선을 직접 시찰한 후 워싱턴에 “시간이 핵심이다. 지체 없는 결정을 바란다”는 전문을 보냈다. 맥아더는 우선 2개 사단의 투입을 건의했으며 트루먼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트루먼은 과연 북한의 한국 침공 배경에 소련이 있다는 것과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 야욕을 어떻게 해서 확신하게 된 것일까. 1945년 5월7일 독일의 항복으로 2차 대전이 끝나자, 연합군 편에 섰던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중공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넓혀 갔으며 유럽에선 동유럽을 넘어 지중해와 발칸 지역으로의 확장을 꾀했다. 트루먼과 조지 마셜국무장관은 이 같은 소련의 기도를 경계했다.

전후 소련의 노골적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은 주소련대사인 조지 캐넌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부터 나왔다(1947, 7 Foreign Affairs지 논문 게재). 즉 소련의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 수립한 ‘반공정책’이다. 이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트루먼 독트린’

대 강국에 의해 분할, 관리되자, 미국은 서방이 점령 관리한 서베를린을 서독과 연결시키려 했다. 그러자 소련은 서독으로 연결된 모든 도로를 차단시켜 버렸다. 이에 미국은 서베를린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그 유명한 ‘베를린 공수작전’을 펼쳤다. 매일같이 식량 연료 의약품등 생필품들이 서베를린으로 공수됐다. 공수작전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됐으며 결국 소련은 손을 들고 도로 차단을 해제했다. 사상 유례없는 이 공수작전을 통해 트루먼의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 미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트루먼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대응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런데 6·25 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을 왜 트루먼 대통령은 해임했을까? 당시 상황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상고를 위해 그때의 상황을, 기록문서와 당시 국방장관 조지 마셜의 회고록과 같은 ‘마셜 : 리더쉽의 교훈’ (Marshall: Lessons in Leadership, H. Paul Jeffers 저) 에서 몇 대목을 소개한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장군은 워싱턴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와 우려를 몇 번에 걸친 강한 주장으로 설득하고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미 합참의 우려는 인천 해역의 만조시간이 2시간 밖에 안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심



본회 회우들이 독도함상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국군의 날 열병식에 참석한 본회 회우들.

바다에서...육지에서...국군 위용에 감탄

대한언론인회 회우들 인천상륙작전재연 - 국군의 날 행사 참관

인천상륙작전 재현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사(戰史)에 길이 남을 승리의 대 기록이다.

지난 9월 15일은 인천상륙작전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역사의 현장인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는 우리 해군과 해병대에 의해 인천상륙작전이 재현되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실감나게 전개했다. 이 작전을 지켜 본 수많은 6·25 참전 노병들은 62년전 그날을 회상하며 착잡한 감회에 젖었다. 그 때 만일 맥아더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더라면 6·25 한국전쟁은 과연 어떻게 결말났을까. 심중팔구는 대한민국도 베트남처럼 적화되었을 것이다. 남침 한 지 2개월 반 만에 남한 땅의 85% 이상이 이미 적 수중에 들어갔고, 경상남도의 일부인 낙동강전선이남만 남긴 절망적 상황에서 맥아더는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적 주력부대의 배후를 차단, 포위하는 대담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 까지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군산 쪽을 택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 뒷 얘기다.

그러나 맥아더는 “북한군 수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 경계가 허술한 곳(인천)을 택해 적의 허를 찔러야 한다”고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인천상륙작전의 대 성공을 발판으로 평양을 지나서 한·만국경까지 밀고 올라갔으니 그런 점에서도 맥아더는 우리 민족의 은인이다. 그런데도 그의 동상을 철거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자들



인천상륙작전 재현행사에서 상륙정들이 돌진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특공부대원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 있으니 이들이야 말로 북한의 총성스러운 하수인들인 ‘종북 좌빨’ 집단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날 행사는 월미도 앞바다에 닿을 내린 1만 8,000톤급의 대형 갑상상륙함인 독도함상 갑판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해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들, 대한언론인회 회원과 6·25참전언론인 등 1천 5백여명이 참관하여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상륙작전은 월미도 방파제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신호로 시작했다. 당시 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7만5천명의 상

륙군이 함포사격의 지원을 받으며 물밀듯이 상륙을 감행했다.

해군의 링스 헬기가 하늘을 누비는 가운데 바다에는 수중 레이더인 ‘디핑 소나’가 투하되어 적 잠수함을 수색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적이 해상에 띄워놓은 기뢰들을 제거하는 소해(掃海)작전까지도 전개되었다. 또한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원들(UDT)들이 400m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해상침투하는 장면이 장관이었고, 6·25 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순 우리 기술로 만든 수륙양면용 장갑차들이 편대를 지어 고속으로 바다위를 질주하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날 동원된 각종 장비들은 대부분이 우리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국산 무기들로서 6·25전쟁 당시의 초라했던 국군과 오늘의 현대화 된 국군의 위용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군의 날 행사 참관

이어서 9월 26일엔 충남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64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추석 연휴관계로 앞당겨진 이번 행사에서 힘차게 비상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위용을 보는 감회도 남달랐다. 이날 선보인 현대화된 신형 무기들은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군에 대한 신뢰를 현장감 있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비면에서의 신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무장면에서도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6면에서 이어집니다.

니지 않은 지도자다.

맥아더는 아칸소주의 도시 출신으로 부친 역시 장군으로 필리핀전투등에서 전공이 커 군부에서 명망이 높았고 필리핀 군정장관을 지냈다. 맥아더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다. 성

격에 있어서도 트루먼이 전형적인 시골 사람으로 순박하고 솔직하며 그러나 불의를 보곤 가만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알려진 얘기대로 트루먼은 1차대전이 일어나자, 나쁜 시력을 커버하기 위해 시력표를 모두 암기해 자원입대, 포병 장교로 프랑스전선에서 싸웠다. 맥아더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트루먼이 전투 수행중인 전쟁영웅을 해임시킨 것

은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과 ‘문민통치’라는 미국 정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였다. 한국과 관련해 트루먼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즉 그가 대통령으로서 정책 전반에 대한 개념과약과 이해가 더 깊었다면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 방위선 밖에 있다는 위험한 발언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다. 한반도 6·25 전쟁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중국지역으로까지의 확전을 주장한 맥아더장군과 중공 소련과의 확전을 우려한 트루먼의 휴전 정책 중 과연 어느 길이 옳았는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역사의 과제다.

그러나 트루먼과 맥아더, 이 두 인물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 될 위기에서 구해졌다는 사실 만큼은 제대로 평가 되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기고 전해야 할 기록이다. [4]

부적절한 녹취, 뉴스 신뢰도 먹칠

방송 보도에서 당사자나 관계자의 녹취를 삽입하는 것은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보도 기법이다. 방송 보도의 강점인 현장성과 사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진실성도 확보해 전체적으로 방송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보도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녹취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녹취를 기계적으로 짧은 리포트 안에 꼭 넣어야 하나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뉴스의 본질과는 다소 떨어진 사소하거나 기계적인 문제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뉴스를 시청하다보면 리포트에는 녹취를 꼭 넣어야 한다는 기자의 강박감 때문인지 적절하지 못한 녹취를 기계적으로 넣어서 뉴스의 흐름을 끊고 내용을 잘못 전달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종종 있음을 느낀다. 특히 강력사건 보도에서 범인과의 인터뷰를 시도하는데서 빈번하게 나타는 현상이다. 준비된 인터뷰가 아니고 경찰 중에 마지못해 나오는 범인의 대답이 기자의 구미에 맞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녹취는 뉴스의 흐름이나 사실성을 해쳐 전체적으로 뉴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녹취는 어떤 것이고 적절한 녹취를 위한 인터뷰 기법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난 9월 14일(금) KBS의 9시뉴스에서 다룬 범행 56일 만에 잡힌 울산 자매 살해 사건 보도를 예로 들어보자.

1분 20여초 방송된 리포트에서 범인, 피해자 유족, 범인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등 3개의 인터뷰 녹취를 포함시켜 무척 공들여 취재, 보도한 뉴스임을 알 수 있다.

녹취의 길이는 범인(기자 질문 포함해서) 약 8초, 유족과 신고자 각각 12초 정도였다.

해당 리포트의 첫 범인 녹취는 기



오건환

·본회 회우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했습니다”란 범인의 육성을 집어넣은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언어 습관상 수사관이나 보도를 하는 기자 등이 쓰는 것이지 범인 스스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발적이란 열떨결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양

나 일반 시청자, 특히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가슴을 후벼 파고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고 본다. 이런 녹취를 삽입하면 우선 뉴스의 사실성과 현장성은 확실하게 입증하게 된다. 취재기자의 열의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뉴스의 진실성과 피해자, 나아가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가 어느 점을 취해야할지는 각자의 판단 나름이겠지만 나는 이런 경우에는 후자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성이나 객관성, 사실성은 화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왜 그랬습니까?”란 기자 질문에 “……” 묵묵부답이라면 객관성이나 사실성에 진실성까지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인터뷰(때론 아무 말도 안하는 또는 없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고 정직한 답변이란 측면에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리포트의 경우 범인이 아주 명쾌하게 ‘우발적’이라는 전문적이고 의도된 대답을 함으로써 뉴스 내용의 논리와 흐름을 끊어놓았고 뉴스 시청자의 울분과 불쾌감을 높여 놓았을 뿐이다.

적절한 인터뷰 기법과 인터뷰 내용 중 어느 부분을 발췌해 삽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끊임없는 기자 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4]

살인범 “우발범행” 육성 그대로 전달 보도 흐름 끊고 시청자 불쾌감 초래

자가 56일만에 잡힌 범인은 초췌한 모습을 띠고 있다며 검거된 범인의 초췌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왜 그랬습니까?”하는 기자 질문에 “우발적으로 했습니다”란 범인의 답변과 “산만 옮겨다니셨습니까?”란 기자 질문으로 끝났다. 사건 발생 56일이 지나 검거된 살인사건, 더구나 자매를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범죄 사건이라면 기자는 사건 발생부터 해결 과정을 계속 추적했을 것이고 범인이 흥기를 미리 준비한

형에서 계획된 범죄와는 현격하게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범인이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극히 객관적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장기간 숨어있다가 검거돼 호송되는 도중 운집한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으면서 하는 대답으로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 대답이 풍기는 것은 범인이 전문범죄꾼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녹취일 수 있겠으

대상포진 원인과 치료 강의 토요건강포럼 10월 6일 개최

오는 6일 열리는 토요건강포럼에서는 가을철과 겨울철에 노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대상포진에 대해 이윤수 박사가 그 증상과 진단, 검사, 치료 등에 대해 알려준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 속에 잠복해있다가 발병하는 병으로 특히 젊은이들보다 60세 이상에 많이 발병되는데 심한 통증이 수반되며 홍채염,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할 수도 있으며 뇌수막염, 간염, 폐렴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은 노인환자의 30%에서 나타난다.

한편 지난 달 8일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 이상만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은 “현재의 노인들은 제각각 청춘을 불태운 격동의 그 시절에 주위사람들로부터 고집불통(固執不通)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각처에서 열심히 살아와 그 고집이 밀거름 되어 오늘의 풍요로움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불통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노인들이 사고방식을 바꿔 소통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고집불통의 노인에서 소통의 노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에는 자신의 고집대로 신념을 가지고 공적을 쌓으면 사후에 공덕비나 선정비등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로 인품을 기리는 풍속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수의 능력자만이 살아남았을 뿐 대부분이 밀려나고 있고, 기술혁신과 아울러 신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해 50, 60대가 일자리를 잃고 중노인이 되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고집은 빛을 잃고 퇴색해 가고, 따라서 불통의 잔재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 점에서 노인은 분발해야 하며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소위 실버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재확인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가족과 소통하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며 이렇게 할때 노인의 고집이 불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꺼져가는 성냥불도 마지막



9월 건강포럼에서 강의하는 이상만 원장.

엔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사람으로서 노년을 밝게 산다는 것은 마치 천명과 같은 것이다.

공자는 70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모질지 않게 행동한다는 말씀이다. 바로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인 어질게 살으로써 현상세계의 선악과 의와 불의에 휘둘리지 않고 대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만 이사장은 “만일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소통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노인의 아름다운 품위를 유지해 갈 것이며 노인은 고집불통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4]

사우회 소식

모범사원 사우회장상 제정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올해 처음으로 ‘경향모범사원 사우회장상’을 제정했다. ‘경향 모범사원 사우회장상’은 경향에 몸담았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 하고 애사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사우회 회우들의 협찬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며 소정의 상금과 함께 상패를 수여한다. 한편 사우회는 지난 9월 5일자로 대폭혁신된 사우회보 47호(12면)를 발간했다.

바둑·볼링 동호회 창립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김문진)는 9월 1일자로 회보 19호를 발행했다. 8면 타블로이드 컬러로 발행된 이번 회보는 1면에 활기찬 동호회 활동소식과 바둑 볼링동호회 창립 소식을 실었다. 서울신문사우회는 12월 13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사우회 기금 2천만원 추가 적립

KBS KBS사우회(회장 강대영)는 기금을 2억 4천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2012년 상반기 운영자금 중 여유분 2천만원을 기금으로 추가 적립한데 따른 것이다.

대권후보 국가-안보관 검증 소홀

무소속 안철수의 출마선언으로 3각 구도가 된 18대 대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검증해야 할 대목은 모든 것의 근본인 국가관·안보관이다. 신문들은 그간 경마식 보도로 대북문제를 비롯한 안보관 검증에 미흡했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9월13일 국방포럼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와 박왕자 씨 피격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4번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면서 대통령 후보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과 철학에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가 되자마자 한반도 평화에 최대 위협인 북한 핵의 해법도 없이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환상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행태는 G10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안보적 자질에 의구심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신문들은 이런 문제를 정밀 분석하지 않고 있다.

외부필진이 회담 구걸 말라 경고

자체 필진이 아닌 외부 칼럼니스트가 정상회담을 구걸 말라고 쓴다. 문화일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헛기침만 해도 알아서 쏘이며 비료, 의약품에 두둑한 현찰까지 지원해 북한을 10년 동안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기아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의 밑천이 됐고, 핵 개발을 앞당겨준 결과가 되었다. 어이없게도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주적을 도와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허황된 사기극을 뒷받침해 준 격이 되고 만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확고한 대북 원칙이다”라는 유영옥 경기대 북한학 교수의 ‘南北정상회담 뒷거래’ 기고를 이미 지난 6월22일 실었다.

가장 성급한 문재인은 후보가 되자마자 ▲일자리 혁명 ▲북지구가 건설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실현 등 5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면서 “취임식에 북한을 초청하고 내년 6월15일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정전 60주년인 7월27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과거 두 좌익정권에서 통일이 가까워졌으나 이명

박 정부의 등장으로 멀어졌다고 했다. 국보법 철폐나 연방제 통일론은 북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후보는 9월1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가려면 우선 튼튼한 안보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때의 이야기다. 이한구의 말대로 ‘민주당의 호객꾼’이라면 위장술일 뿐이다. 현충원에서 안철수는 김대중 묘소만 참배한 문재인과 달리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들르는 대통령관을 보여줬다. 동아일보는 9월21일 사설에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해야한다고 밝힌 안 후보는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곧

다. 흑묘백묘론은 미국의 발전상을 본 등소평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을 잘 살게 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능력 있는 자부터 부자가 되어라”는 ‘先富論’으로 구체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일부 매스컴은 ‘김정은의 고르바초프식 개혁·개방’이라고 국민을 오도한다. 사실이라면 정말 좋다. 그러나 선대의 악업에서 자유로울 김정은은 아직도 대남 유화책을 안 보여준다. 양무진 교수는 경향 칼럼에서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집착하는 방어적 외교·안보 전략도 탈피해야 한다”고 썼다. 강성대국은 건설했으니 경제강국이 되도록 도와야한다는 지론이다. 북한 핵 위협과 熱戰의인 무력도발로 희생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위험한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2일 언론 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다. 대화는 계속 할 것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내 임기 중 한번 해야지 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내재적 변화를 중시하는 이런 발언을 후임 대통령은 음미해야 한다. 현 정부도 임태희 전 비서실장의 말대로 남북접촉을 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북한 핵,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살해,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10월23일 연평도 포격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의 외면이 진전을 가로막았다.

정상회담보다 이질화 해소가 시급

독일통일과정이 보여주듯이 이벤트성 정상회담이나 쇼윈도 같은 부정기적, 시혜적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고향방문 자유화, 남북한 상호 방송 청취 등의 이질화 해소가 시급하다. 서신왕래와 유선전화, 핸드폰 소통도 물론이다. 정밀한 풀뿌리 교류의 준비와 성사 없이 얼싸 안고 사진 찍는 정상회담으로 얻을 게 없다. 평양으로 달려가지 말고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요인들을 남한으로 불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면 정상회담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W]

‘북한과 정상회담’등 정밀 분석 없어 종북 학자 동원 대북지원 주장 한심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 사업은 정치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남북경색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북핵으로 남북간 전면적 경협도, 북-미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한 선언을 정부 약속으로 격상하는 건 제왕적 발상이다. 안철수의 말대로 대통령은 국민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자리다.

안철수는 출마선언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평화체제는 안보와 균형을 맞추는 데 실현 가능하다”라고만 밝혔다. 한겨레는 9월20일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은 안보 또는 북한의 보편적 인권에는 큰 관심 없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만을 강조하는 세력으로, 반대로 새누리당은 평화체제보다는 안보만을 강조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다. 자신은 안보와 평화 양쪽에 균형을 이룬 ‘미래가치’를 대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라고 분석 기사를 썼다. 하지만 이는 안철수

통합이자 새로운 정치임을 참배를 통해 보여준 셈이다.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으로 성장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썼다.

개혁·개방 촉구 용기 없으면 회담 무용

국내 탈북자 2만 명은 북한주민이 자유를 찾는 절규다. 3대를 이어가려는 북한 폐쇄 체제 모순의 분출이다. 신문들은 솔직해야 한다. 종북적인 북한학자를 동원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큰 일 날 것처럼 왜곡하는 논지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금강산 단풍 올해는 볼 수 있게 결단하길’이란 9월7일 한겨레 사설은 본질을 외면했다. 지금 남북관계가 북한에게만 이득인 금강산관광으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9월5일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기고에서 김정은이 “‘실리 사회주의’ 또는 등소평 식의 ‘흑묘백묘론’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부풀렸

언론가 소식

언론진흥재단 한중 수교 특별세미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9월 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중 수교 20주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들도 다수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서보강 인민일보 고급기자와 박승준 인천대 초빙교수(전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했으며 한중 특파원 클럽(화벽지성) 소속 중국특파원 출신 한국언론인과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신화사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중국언론사특파원등 3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관훈클럽 지방언론 현주소 세미나

관훈클럽(총무 김민배)은 9월 14일 오후 3시 제주도 서귀포 KAL 호텔에서 ‘지방언론·인터넷 매체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편집기자협회 창립 48주년 기념행사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는 협회 창립 48주년, 법인 전환 1주년, 협회보 창간 45주년을 맞아 9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편집기자협회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언론관계자 및 정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편집기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똑똑한 기자에서 원만한 정치가로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1〉

회우초대석

인터뷰 : 글·사진

9월 17일 저녁, 태풍 산바가 비 바람을 몰아치던 날이다. 지하철 역에서 나와 무조건 택시를 잡아탔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종하 회우를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었다. 택시 기사가 “길 건너편에서 타셔야 하는 데...”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냥 갑시다. 그럼 U턴 하면 되네요”라고 내뱉었다.

몇 차례인가 ‘실버 화이팅’을 인터뷰할 때는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선배 회우들을 뵙고는 했었다.

요즘 필자는 나름대로 나만의 3가지 생활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말이다. 첫째가 일일일사(一日一事)고 두 번째가 일일일서(一日一書)다. 남은 세월 서두를 일이 뭐 있나.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되 글 한줄 쓰거나 한 줄을 읽기라도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일일일성(一日一省)이다. 하루에 한번쯤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옛 사람 흉내라도 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김 회우와 인터뷰해야 하는데 내일은 또 지방에 약속이 있다고 한다.

오늘이 아니면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 서둘러 밤길을 나서야 했다. 오늘의 一日一事는 끝났는데 말이다. 뭐가 그리도 바쁘시다는 말인가? 솔직히 우산을 접고 아파트 문을 들어설 때까지도 심사가 편치 않았다. 내가 왜 비를 맞으며 이러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였다.

내성적이고 공부 잘한 모범 학생

일단 김 회우의 집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고 온화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방문객의 심사를 정감 있게 감싸주었다.

사모님께서 내어놓으신 다과를 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첫 질문을 던졌다. 고향이 창원이지요?

김 회우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에 태어났다. 상남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키가 작은 순서로 3번째였지만 공부를 잘했다. 내성적이었지만 모범생이어서 늘 급장을 맡아 했다. 김 회우의 리더십은 이미 이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일제의 근로봉사대로 동원돼 남천에서 모래 채취 작업을 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았고 진해중학교로 진학했다가 부산 동래중학교 수학 교사이던 자형의 권유로 동래중학교로 전학했다.

동래고 2학년 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서울대 정치학과로 진학했다.

그때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대학에서 제일 어려운 과(科)가 정치학과라고 해서 지원했더니 불어



국회 부의장 취임 축하 회초가 걸린 자택에서 포즈를 취한 김종하 회우.

한국일보 입사시험 두번합격 ... 신아일보 창간 “요즘 언론 국가 정체성 인식 결여 된것 같아”

서 다니게 됐다고 했다.

대학3학년 때 한국일보 견습기자 시험을 봤다. 공채4기로 또 합격했다.

이때 같이 합격한 이들이 이원흥, 김성진 전 장관 등이었다. 김회우는 기자생활을 마무리하고 대학생활로 돌아갔다가 다음해인 1957년 졸업반 때 다시 한국일보 기자 시험에 또 합격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견습 5기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로 대학교 가고 대학에서도 재학생 때 기자 시험에 합격한 일을 회상하면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앞당기기 보다는 취미생활을 즐겼으면 인생에 그만 큼 더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학생활 중에 신진회, 개진회 등의 동아리 활동

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한국일보에서 사회부기자와 정치부기자로 열정을 불태운 김 회우는 5·16 후에 서울신문 사회부로 옮겨다가 3년 뒤 호영진, 임성준 등과 함께 신아일보 창간 멤버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신아일보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약했던 사세를 보완하고 독자의 인기를 얻으려고 군부의 비위를 건드리는 기사도 과감히 썼고 가관 전쟁을 벌이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신아일보 기자들은 월급도 많았고 이병주와 심연섭 칼럼 등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후발주자인 중앙일보에 밀리다가 정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부인 강귀희 여사와 두 딸이 김회우의 든든한 울타리다

· 평탄하게 살아요

金鐘河

- 전 한국일보, 서울신문 기자
- 전 신아일보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 전 국회의원(5선), 국회부의장

사진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정계입문

5·16후에 한국일보에서 서울신문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회우는 10월 유신 후에 정일권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몸담게 됐다.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을 하면서 정계 진출을 생각하곤 했었는데 정일권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그 생각이 실현된 것이다. 정 의장이 터키 대사였던 시절부터 맺어온 각별한 관계의 결과였다.

정일권 의장을 지근에서 보좌하면서



2001년 정기국회에서 사회를 보는 김종하회우.

힘들었던 것이 야당의원들과의 관계였다고 한다.

“유신 땀데 막 밀어 붙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김 회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종필 총리, 정일권 국회 의장 땀데 정의장이 야당 협상 창구였지요. 그때 정의장은 신민당 유진산 당수를 대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였지요” 라면서...

70년대 시대상황으로 봐서 5·16과 10월 유신이 경제 개발에 기여한 역사적 공로는 평가 받아야 하고 긴급조치 등의 초헌법적인 조치들이 지나쳤음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먹고 살게 해놓아야 한다는 당위론을 인정해야 하고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과 어두운 면이 있었음도 인정하는 바탕에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이 바탕이 돼야 민주화도 달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면 유정희 국회의원이 되던 관례대로 김 회우는 자연스레 유정희 국회의원이 됐고 10대와 11대 유정희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향인 창원에 출마해서 14대와 15대, 16대 지역구 의원이 된다. 생각하면 이뤄지는 것이 김 회우의 인생인 것 같다. 이때 기록을 보면 지역구 득표율이 48~49.6%였다.

“서울서 주로 생활하시면서 지역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비결이라도”라고 묻자 심플한 답이 돌아왔다. “제가 김해 김씨구요. 지역구에 김해 김씨들이 많이 살지요.”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진솔한 김 회우의 답변에서 소박한 인간미가 우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박한 인간미와 소탈한 성품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제 16대 국회부의장 등의 중책을 맡아 원만한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었다.

2001년 국회부의장이 될 때는 경쟁 상대였던 서정화, 정재문 의원 등의 양보를 얻어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부의장이 됐다.

“기자때가 가장 좋았어요”

기자과 의장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을 지내셨는데 어느 때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었더니 순박한 대답을 했다.

“기자 때가 제일 좋았어요. 쉽고 편했고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썼으니까. 자부심도 있었고...”

정말이냐고 되물으려다가 참았다.

요즘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식견이 모자라고 질이 낮아 진 것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⑧

젊게 오래 사는 법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다음은 미국 의학정보사이트 ‘웹엠디(WebMD)’가 소개한 ‘젊게 오래 사는 법’ 18가지의 요약이다.

1. DNA를 보호하라. 건전한 생활 습관은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telomere)의 퇴행을 막아준다.
2. 매사에 성실하라. 장수 여부의 최고 변수는 성실한 성격이다.
3. 친구를 사귀라.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적은 동년배에 비해 10년 더 장수한다.
4. 건강한 생활방식을 가진 친구를 갖도록 하라. 똥똥한 친구를 사귄 경우 비만이 될 가능성이 57% 높아진다.
5. 담배를 끊어라. 30세에 담배를 끊으면 수명이 10년 연장된다.
6. 낮잠을 자라. 규칙적으로 낮잠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다.
7. 과일과 채소, 곡물, 올리브유 그리고 생선을 위주로 하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하라.
8. 푸른색과 노란색 채소 위주의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오키나와 사람처럼 먹어라.
9. 결혼하라.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10. 체중을 줄여라. 살을 빼면 당뇨와 심장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병,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11. 움직여라. 1주일에 2시간 30분 정도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하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 우울증 등에 걸릴 위험이 줄어 들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력을 예민하게 유지할 수 있다.
12. 소량의 술을 마시라. 한두 잔의

반주는 심장병 발병률을 낮춘다.

13. 종교를 가져라. 매주 한차례 이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 용서하라. 원한을 털어버리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며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15. 안전장비를 착용하라.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벨트만 착용해도 사망이나 부상을 50% 줄일 수 있다.
16. 숙면하라. 질병을 예방하고 병세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일찍 사망할 위험이 크다.
17.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요가나 명상, 복식 호흡이 도움이 된다.
18. 목표를 가져라.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은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으며 치매에 걸릴 위험도 적다.

취미생활 등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4]

같고 지사적 프라이드가 약해진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김 의장님을 비롯해 저를 포함한 선배 기자들이 잘못된 유산을 남긴 결과가 아닐까요?”라고 물었더니 “과거의 누군들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롭겠어요”라며 웃었다.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면서 굳이 사양하시는 사모님을 함께 모셨다. 김 회우 동래고 동기생의 외사촌 동생인데 소개받고 바로 좋아해서 연애 좀하다가 결혼했다고 했다. 사모님 강귀희(姜貴熙) 여사는 69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아 보일 정도로 건강미가 넘쳤고 밝고 명랑했으며 고왔다.

경남여고와 부산여대 출신인 강 여사가 맹렬(猛烈) 내조지공(內助之功)의 주역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지역구의 원 뒷바라지가 힘들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김 회우의 대답이 또 쉽다.

“국회의원 반 이상을 마누라가 했지. 여자들 상대 많이 해야 하나까.”

자매를 두었는데 서울대 출신의 큰 딸은 미국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첼로가 전공인 작은 딸은 예일대와 독일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귀국해서 같이

사는 데 10월 연주회 준비에 정신이 없다고 했다. 두 딸 모두 자기 일에 만족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는 한데 결혼을 안 해서 좀 그렇다고 했다.

김 회우의 근황은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은 좋은 편이며 이런 약속과 저런 만남으로 매일 같이 바쁘다고 했다.

필자 보기에 그런 약속들이 그렇게 급하고 귀해 보이지는 않았다.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에 힘들었던 일이 다시 생각났으나 모든 모임과 약속을 귀히 여기는 것이 김 회우의 성품인 것 같았다. 그런 성품이 오늘 까지 평탄하고 평안한 김 회우의 삶을 이끌어온 동력으로 보여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조금은 짜증스러웠던 부족함에 일성(一省)을 더해야 했다. [4]

후기: 지난 9월호의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에서 이구열 회우가 서울신문문화부에 근무할 때 “사장 특별기를 타고 지방 출장을 다녔다”는 부분의 특별기는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특별기가 아니고 ‘사장의 특별 배려로 비행기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갔다’는 뜻으로 바로 잡습니다.

창간 멤버로 아 안타깝다”

많은 것을 배웠다. 정 의장은 아랫사람에게도 깎듯하게 예의를 갖췄다. 운전사가 와도 꼭 일어나 악수로 맞았다. 누구든 앉은 채로 대하는 일이 없었다. 약속이 있으면 항상 미리 도착해 기다렸다. 매사에 성실했고 글도 잘 썼다.

‘이북서 월남한 알라스카(?)’ 정일권이 승승장구했던 비결을 옆에서 확인했던 시기였다.

동갑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권 의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데 어색하지가 않았다고 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자리를 노리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는데 정일권 반대 세력이 이를 제거 전략으로 이용했다.

의장비서실장으로 일하는 동안 가장

리다.

한국영화 '예술' 넘어서야 발전한다

최근 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의 작품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의 금빛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린 순간부터 한동안 영화계 안팎이 떠들썩했다. 보도매체도 오랜만에 영화인을 빅뉴스로 다루었다.

그럴 만도 하다. 한국 영화인들은 오래전부터 국제영화제의 그랑프리 필생의 꿈으로 도전했고 그 동안 크고 작은 국제영화제에서 꾸준히 감독, 각본, 주연상 등을 받아왔지만 최고상의 쾌거는 쉽지 않았다. 알고 보면 국제영화제 최고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989년 제42회 스위스 르카르노국제영화제 대상인 금표범상을 받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배용균 감독이 기록했다.

이번은 특별히 칸, 베를린영화제와 함께 3대 국제영화제로 생각하는 베니스영화제라는 점에서 영화로도 국제 경쟁무대에 한류가 정점을 찍은 통쾌감을 안겨주었다. 김기덕 감독의 시상식은 유튜브를 통해 「강남 스타일」을 부르며 말 춤을 추다가 단숨에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어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가수 싸이의 K팝 신드롬 다음의 빅뉴스로 떠올라 영화인들에게 자긍심도 안겨준 셈이다.

김기덕 감독은 이 시대의 걸출한 아트필름의 천재적인 작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우리 대중문화 장르 중 영화의 제작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베니스영화제 정상에 꽃은 깃발은 가요나 TV드라마 부문과 달리 한류의 축포로 낙관하며 흥분할 만한 요소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피에타」는 아무래도 우리 영화의 발전적인 변화의 이정표나 한류의 길잡이 역할을 못하고 짧게 지나가는

개인적인 영예로 머물 공산이 크다.

영화는 보통 편당 제작비 50여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기덕 감독 스스로가 「피에타」는 투자를 해주는 기업이 없어서 불과 1억5천여만 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절규했지만 국내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극히 소수 대기업 투자 자본은 흥행성이 있는 상업 영화나 관객동원에 성공한 감독들 중심으로 제작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투자기업을 탓할 수가



김두호

- 본회 회우
- 전 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 인터뷰 365회장
- 영화 평론가

영화아티스트들에게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정부의 영화진흥예산이 특혜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은 감독 스스로가 두 마리의 토끼 사냥을 위해 높은 산을 넘어서야 한다.

영화감독은 영화의 숙명적인 대중문화의 속성을 무시하고 창

작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다. 독립영화란 이름으로 젊은 감독들이 피나는 제작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봉을 못해

작품들은 영화제의 성향에 따라 선정에 차이가 있으나 어느 곳의 수상 작품이든 세계시장에서 흥행이 보장된 경우가 드물었다. 무수한 영화제들이 관객보다는 영화인들이나 영화저널리즘을 위한 아트필름의 실험무대 같은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 영화가 영화 예술의 교본처럼 주목 받던 시대는 옛날이다.

세계영화시장의 주인 행세를 하며 상업영화 뿐만 아니라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사냥한 작품을 쏟아내기도 한 할리우드 영화도 점점 쇠잔해져 과거처럼 절대 강자는 아닌 것 같다. 그들도 아이디어와 인재의 고갈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영화인들이 극장에 불을 지르며 미국영화사의 직접배급을 반대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영화에 밀려난 지 오래된다. 우리 영화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흥행성과 예술적인 작품수준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아직도 해외 관객에게는 다른 분야의 한류처럼 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김기덕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 최고상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한류영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려면 흥행영화의 과제도 풀어나야 한다. 영화평론가로 「피에타」를 평가하기보다 그의 작품을 보고 나온 일반 관객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그는 한 마리의 토끼만을 생각하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영화제를 위한 예술이 아니고 관객을 위해 만들어지고 관객을 움직여야 하는 예술인 점에서 안타까움을 남긴다. [필자]

김기덕 감독 수상 개인영예 그칠 공산 흥행 평가 받아야 세계무대 석권 가능

없다. 극장용 영화 제작 투자는 영화를 예술이기 전에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 자본과 달리 영화를 예술로 생각하며 작품을 준비하는 감독들은 그래서 언제나 예술을 좇느냐, 흥행을 좇느냐의 절박한 고민에 빠진다.

고민을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문득 생각하면 영화의 예술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 자본들이 외면하는 김기덕 감독 같은 작가적인 역량이 뛰어난 고독한

창고로 들어간 작품이 산처럼 쌓여있다. 그게 냉혹한 영화시장의 법칙이고 현실이다.

김기덕 영화의 사는 길은 결국 영화제에서만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관객 속으로 들어가 관객들에게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삼 한 세기를 넘어서 영화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세계 영화시장의 메카는 할리우드였고 국제영화제라는 것도 미국의 자축 잔치로 볼 수 있지만 아카데미영화제가 세계 영화시장과 영화관객들의 관심거리일 뿐이었다. 3대 영화제로 일컫는 곳의 수상

고희 회우들 전주 문화탐방



전주 경기전을 둘러보는 회우들.

대한언론인회 회원 중 금년에 고회를 맞은(1942년생) 30여명은 지난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전주를 다녀왔다. 언론재단 정기 문화탐방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된 고희 회우 축하여행엔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등 임원진 10여명이 동참 했다.

이번 전주문화탐방엔 프레스클럽 회원 70여명을 포함, 100여명이 오전 7시 30분 서울을 출발, 11시경 전주에 도착해 덕진공원을 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덕진공원은 연꽃 못으로 유명하다. 그 연못은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전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으나 북방만이 공허하여 지기가 얇다는 이유로 가련산과 건지산 사이를 제방으로 막아 지맥이 흐르지 않도록 저수한 것으로 이 연못은 농사용이 아닌 풍수지리설에 연유하여 축조되었다”고 기술돼있다. 덕진 연못의 연꽃은 덕진 채련이라하여 저녁노을 연꽃 풍경이 장관이다.

12시 한국관에서 전주비빔밥으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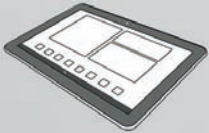
찬을 마친 일행은 오후 4시까지 경기전과 한옥마을 문화유적들을 돌아보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전주 경기전은 대한민국 사적 제339호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태조의 영정(보물 931)을 봉안한 전각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광해군 6년(1614년)에 중건되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경기전 앞을 지나는 길에 태조로인대 이 태조로를 중심으로 교동과 풍남동 일대의 도심지에 약700여채의 한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전주전통술 박물관에선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들을 만날 수 있고 전주전통한지원에서선 닥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 체험관, 공예품 전시관, 기전전통 문화원, 한방문화센터, 전통찻집 등 문화공간 등이 있다. 제대로 돌아보려면 줄잡아 4시간정도는 소요되는 탐방코스다. 귀로엔 천안 금모래 식당에서 돼지불고기 정식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필자]

HOW TO WORK
SMART

삼성전자 **SAMSUNG**



스마트시대의복합기 삼성이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PC, 스마트TV 모든 것이 스마트한 시대-
삼성의 원천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 복합기 A3를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 A3 컬러복합기 자체개발
복합기 기술독립

Real 1200dpi 해상도
선명한 리얼컬러

듀얼코어 CPU
빠른 처리 속도

All-in-one 일체형 보드
탁월한 경제성

컴팩트 디자인
사무공간 절약

CLX-9201NA/9251NA/9301NA(20/25/30PPM)

삼성 스마트 복합기 A3

구입 및 임대 관련
문의처

서울 삼성네오정보(주) 02-711-7025 (주)삼성MNS 02-521-5879 경기/교양 삼성비즈니스솔루션 1544-3316 경기/수원 (주)루맨 1588-6351 인천/경기 (주)삼성DPS 032-432-8878 강원 강원솔루션 033-613-4545
대구/경북 삼성디엠에프 1588-8685 부산 (주)삼성비에스 051-851-9350 울산/제주 삼성DMFP총판(주) 052-266-0074 경남/창원 삼성디지털센터 055-265-1144 광주/전남 (주)유아이티 062-652-2007
전북/전주 (주)삼성씨엔피 063-229-2296 대전/충북 (주)하나이티 042-524-4456 충남/전안 (주)에스코 041-557-0022

삼성전자 B2B(특판) 구매상담 1588-3536
삼성전자 B2B 서비스문의 1588-3773
www.samsungb2b.co.kr

일본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일본은 지난 세기 주변국들을 괴롭힌 제국주의적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안보를 걱정하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까지 넘보는 일본의 속내에는 ‘남의 땅도 차지하면 내땅’이라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독도(獨島)를 비롯하여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그리고 ‘쿠릴(Kuril)’ 열도 등 영토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은 지난 세기 일본이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탈(侵奪)한 뒤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자기나라 영토로 만든 것들로 해당나라 국민들을 또다시 가슴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에 성공한 뒤 서구문물을 받아 들여 근대화해 나섬과 때를 같이하여 당시 조선과 청(淸)을 넘보기 시작한다.

지금의 영토문제라는 것이 그때 잉태됐다. 그때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1860년 브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 일대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러시아에 25년간 조차(租借)당해 군항(軍港)으로 만들게 하는 치욕의 시기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에게만은 대단한 나라였다. 1882년 임오군란이 나자 원세개(袁世凱)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대원군을 천진으로 압송하고 청·일전쟁때까지 사실상 조선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1894년 6월 동학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청에 원병을 요청하는데 즉각 청은 3천병사를 파견한다. 이에 일본은 한달 뒤 청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에 나서 성환, 평양, 만주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다. 그 다음해 4월17일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등박문이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서 청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고 만주 및 대만을 포함한 팽호(澎湖)열도를 일본에 할양하며, 이미 중국에서 다오위다오(釣魚島)로 불리던 무인도 8개 섬을 오키나와현에 편입 시킨 뒤 센카쿠(尖閣)열도라 명명한다. 그리고 청으로부터 2억냥의 보상금을 받아낸다. 일본은 전쟁보상금 2억냥과 미국에서 국채를 판 돈 8억엔으로 군함과 대포를 만들어 대륙침략을 준비하게 된다. 이 돈은 현재 10조 달러의 가치보다 크다.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만주를 빼앗았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이른바 3국 간섭으로 실패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명성황후 시해’라는 패륜을 저지른다. 겁먹은 조선은 러시아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아관(俄館)파천’ 사태까지 이른다. 러시아는 이어 압록강 하류 용암포를 점령하는 등 러시아와 일본은 상호야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여순항을 기습 공격하고 그 다음날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수장시킨 뒤 서울에

진주한다. 일본은 그 다음날인 10일 조선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은 즉시 필요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일본은 단계적으로 조선을 손아귀에 넣는 조치를 생산해낸다.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 봉천(奉天)에서 벌인 사할(死活)

을 건 전투에서 일본군이 9월 4일 승리하자 러시아는 충격에 빠진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경악하여 10월 15일 발틱해 리에파야 항에 있던 세계최강의 ‘발



이병대

·본회 부회장
·전 KBS 스포츠국장

은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러시아 발틱 함대와와의 최후 대결장소를 독도인근 해상으로 판단한 일본은 당시 무인도였던

단번에 기함 ‘수보로프’호를 격파하고 부상한 사령관을 포로로 잡으면서 러시아 함대는 잇달아 격파되어 독도 부근에서 마지막 군함이 수장되고 만다. 도고는 그 뒤 “나는 영국의 넬슨과는 견줄 수 있으나 이순신장군과는 견줄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러시아 발틱 함대와와의 최후 대결장소를 독도인근 해상으로 판단한 일본은 당시 무인도였던

무력으로 침탈한 남의 나라 영토 역사적 사실 외면 제것이라 우겨

틱함대(사령관 로제스트빈스키중장)’를 일본에 급파한다. 발틱함대는 전함 8척, 순양함 8척, 구축함 9척과 공작선, 병원선 등 38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은 발 빠르게 영국과 동맹을 맺어 수에즈운하를 봉쇄하여 발틱함대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9개월동안 3만7천km를 항해한 끝에 1905년 5월 27일 쓰시마 해협에 모습을 나타낸다. 숨어 기다리던 일본의 도고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함대(전함 총 97척)는

독도를 한 어부를 시켜 자기 영토에 올려 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의 누구도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를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웃기는 국토침탈이었다.

역사 이래 조선의 땅으로 일본어부들이 세금을 내면서 강치(海驢)잡이를 했다는 문서까지 있건만 자기들이 먼저 등록했다고 자기들 것이라고 역지를 쓰

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섬이라고 등록하기 전 일본에서 발행된 지도가운데 우리 영토임을 표기한 지도가 지금까지 50여종 이상 발견되고 있으나 상관하지 않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시대적 운명이었다. 독도는 다오위다오가 센카쿠로 이름을 바꿔 오키나와현에 등록된 것과 같은 절차를 10년뒤 다시 밟은 것이다. 발틱함대가 패배하자 미국의 태프트(Taft)육군장관이 7월 29일 일본에 와 일본수상 가스라(桂太郞)와 이른바 ‘가스라-태프트 밀약’을 한다.

이 밀약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점수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보장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일본은 한달뒤 영국으로부터도 같은 약속을 받는다. 미국은 서둘러 러·일전쟁 종결을 위한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을 주선한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한국에서 정치, 경제, 군사상 우월권을 확보하고 지금의 쿠릴(Kuril)을 거머진다.

쿠릴열도는 러시아 캅카스반도와 일본 홋카이도사이의 56개섬과 일대 바위섬으로 아이누족이 원주민이었으나 16세기부터 러시아인들이 이주 해와 계속 분쟁이 되던 지역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미국, 영국의 승인아래 그해 11월 17일 사실상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을사늑약(乙巳條約)을 을사오적(五賊)의 주선으로 맺는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외교권이 박탈된다.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날이다. 그 뒤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연합국의 노력으로 광복이 되어 우리의 영토는 우리 주권 아래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조국해방에 앞서 연합국 수뇌들이 모인 카이로·포츠담선언을 통해 우리의 독립이 천명됐고 일본의 항복으로 독도를 포함한 우리 영토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말해 제자리에 있던 그대로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쿠릴열도는 소련군이 일본 항복 6일전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진입과 동시에 상륙해 점령해 버리는 바람에 소련이 지배하게 된다.

한편 다오위다오는 오키나와현에 편입되어 일본의 항복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72년 5월 샌프란시스코회의 결과 일본에 다시 넘겨져 일본이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의 망동(妄動)을 지켜 보면서 지난 세기 유럽을 유린했던 나치 후손들은 참회를 거듭하건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은 어찌하여 아직도 남의 영토를 자기네 것인 양 제국주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

신라시대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사실들이 분명히 증명하는 독도를 러·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한 어부를 시켜 일본의 한 현에 등록해 놓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행위가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나기 앞서 웃음부터 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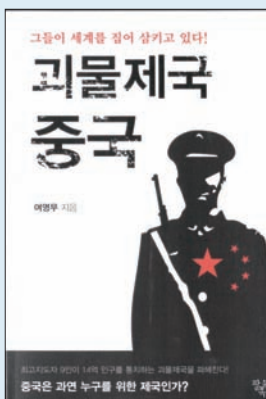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新刊

여영무 회우 ‘괴물제국 중국’

‘괴물제국 중국’은 5천년간 형성된 중국인들의 16개 특성과 괴물스런 중국의 정체를 왜도난마로 철저히 해부한 중국 비판서이다.

저자 여영무 박사는 북한과 통일 연구 2세대이자 원로 언론인겸 국제법학자(법학박사)로서 국내 정상급 전략 및 국제테러리즘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40여년간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면서 유례없는 3대족벌세습 장기독재체제인 북한정권이 67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것과 자유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괴물국가’ 중국때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저자는 6·25남침전쟁때 중공군의 불법 개입과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때 북한 감싸기, 동북공정, 이어도 해양공정등, 수교 20년간 10대 한·중갈 등항목들을 추출, 해부했다. 그는 중국을 ‘Frenemy’(친구와 적의 합성어)로 규정, 지금의 뒤통수(同舟共濟)로 승화시켜 한·중이 윈윈하는 선순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머지않아 이어도를 침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예측하면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한·중·일간 영토분쟁이 1세기전 상황과 흡사함을 지적하면서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했다. (도서출판 팔복원 발행·신국판 반양장 472면·값 18,000원) ☞



“가까이 있어 더 행복한 에너지”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도시의 행복 에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절약도, 환경보호도 효율적으로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 및 건물 등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CES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따소미 고객센터

1688-2488

평일 09~18시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분리 독립 상흔속의 발칸 반도를 가다

이남규 (본회 회우·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유럽의 화약고라는 발칸반도. 현직에 있을 때 여러 번 쓴 일이 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그곳을 두 번이나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산 속에 숨겨놓은 송신기를 전파를 추적하여 찾아내는 ARDF(아마추어무선방향탐지)경기 세계선수권대회가 지난 9월 세르비아에서, 2년 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열렸다. 모두 연방이 해체되기 전 유고슬라비아에 속해있던 발칸반도 국가다. 오래 전부터 전파분야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따라갔던 것이다.

이번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악명 높은 러시아항공 아에로플로트를 탔다. 항공기 추락률이 에어인디아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하고, 바로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시험비행 중이던 수호이여객기가 추락한 일도 있는데다가, 악명 높은 모스크바공항의 환승시간도 1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 꺼림칙했지만, 4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데는 어쩔 수 없었다.

9월 6일 나는 인천공항에서 정시에 들어온 아에로플로트항공기를 보고는 안심했다. 항공기는 거의 새 것 같은 에어버스330이었다. 이 러시아 최대의 국영항공사는 보유기를 거의 전부 에어버스나 보잉 등 서방제 항공기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다만 승객을 더 태우려고 의자는 간격을 좁혀놓아 키 큰 사람에게는 불편했다.

문제는 모스크바공항에서 생겼다. 희귀하게도 거의 정시에 착륙한 우리 항공기는 곧장 게이트로 가지 않고 활주로에서 견인차를 기다렸다. 여기서 15분가량의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다. 우리는 D동에서 F동까지 미로 같은 길을 거의 20분이나 달려 벨그라드행 세르비아항공의 마지막 손님이 되었다.

벨그라드공항에는 정시에 도착했다. 그런데 나와 유모차를 끄는 어떤 여자의 짐이 나오지 않았다. 악명 높은 하물사고가 생긴 것이다. 결국 짐은 4일 후 경기장으로 왔고 그 동안 나는 옷 한 벌로 지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일본선수도 같은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다행이고 짐이 아주 없어지거나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플라스틱필름으로 완전히 싸고 있었다.

우리는 시차조정 겸 관광을 하기 위해 벨그라드 교외의 조그만 호텔에서 일박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로 향했다. 원래 보스니아는 옛 유고연방의 일부였으나 1991년 크로아티아와 함께 독립을 선언하고 처참한 전쟁을 겪은 후 독립했다. 우리는 국경이 되어버린 곳에서 출국과 입국 절차를 밟았지만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옛날 그대로 검문소 옆을 통과하고 있었다.

수도 사라예보는 1973년 이예리사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과 1984년의 동계올림픽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도시이지만 1차대전의 촉발원인이 된 오스트리아황태자의 암살사건이 있었고, 몇 년 전에는 가장 처참한 내전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구시가지에는 중동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착



사라예보 구시가 기념품점에서 필자.



모스타르의 다리.



시상장에서 말춤을 추는 우크라이나 여자선수.

각을 일으키는 번잡한 시장과 모스크가 있고, 베일을 쓴 여인들이 앉아 있다. 내전 중의 탄피로 만든 동제품이 인기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격전의 탄흔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가장 상징적인 내전의 흔적은 공항 옆의 지하터널이다. 산 위에 포진한 세르비아군이 비행장을 포위하여 식량 보급이 두절되자 사라예보 주민들은 800m나 되는 땅굴을 뚫어 생명선을 유

지했다. 지금 이 터널은 관광지가 되었으나 아쉽게도 관리하는 공무원이 일찍 퇴근해 버려 우리는 걸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다.

보스니아 남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모스타르도 내전의 상징물이다. 이 마을을 흐르는 네레트바강에는 1557년 오스만터키가 건설했다는 아치형 돌다리가 있다. 이 강의 양쪽에는 크로아티아계 가톨릭교도와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내

전이 벌어지자 두 지역 주민들이 참혹한 살육전을 벌였고 다리는 파괴되었다. 지금 있는 다리는 2004년 유네스코의 주도로 강바닥에 잠긴 잔해를 건져 올려 재건 된 것으로 이교도 간의 공존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래서 길바닥에 깔린 자갈이 반들반들 빛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응어리는 남아있겠지만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묵은 호텔의 여주인은 이슬람계였는데 남편은 가톨릭이라고 했다.

다음 날 우리는 크로아티아로 들어가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아드리아해의 진주라는 해안도시 두브로브니크가 있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성곽도시로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가는 1991년 세르비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것을 복구한 것이라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면 파괴된 채서있는 보루가 있다. 주변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있다는 경고문도 있다.

우리는 두브로브니크에서 점심으로 낙지떡물로 만든 리조토를 먹고 검은 산이란 뜻의 몬테네그로로 들어갔다.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가 1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왜 독립했을까? 이 지역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집권자의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마약이나 담배 밀수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 국경검문소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짐을 샅샅이 검사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만큼 밀수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해안지대 주민 이외의 사람들은 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정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옛 유고연방에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나라는 중주국적인 세르비아를 제외하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뿐이라고 한다. 나머지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은 독립을 해야 할 실제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갈라진 다임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들의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2차대전 후 다양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슬라브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기초로 연방을 구성해서 번영을 구가했던 티토와 그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는 옛 유고연방의 최남단인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알바니아를 통과했다. 북한과 함께 공산권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쇄적인 1인 독재국가로 알려지고 있던 나라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국경을 통과하여 수도 티라나를 구경할 수 있었다. 국경지대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콘크리트 벙커의 총안이 보였다. 때마침 일요일이라 많은 차량이 동원된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을 볼 수 있었다. 빌딩이 솟아 있었고 평양과 같은 기념비적 건물은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잘 꾸며진 교외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복적이고 있어 상상했던 경직되고 음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17면으로 이어집니다.

溫故知新

명량대첩과 이순신 리더십

오는 10월 30일은 415년 전인 1597년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명량대첩(鳴梁大捷)을 거둔 날이다. 그해 선조 30년 음력 9월 16일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의 명량해협에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전무후무한 바다의 일대 혈전이 펼쳐졌다. 일본 수군이 133척의 대함대인 반면 조선 수군은 겨우 13척. 게다가 불과 2개월 전 칠천량해전에서 전멸하다시피 대패한 뒤라 장수나 군졸이나 겁을 먹고 제대로 싸우려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하루 앞두고 장령들에게 이렇게 훈시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지금 우리의 형세가 이와 같다. 제장이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면 군율대로 시행할 것이니 작은 잘못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악전고투 끝에 적의 대장선을 비롯해 일본 함대 31척을 격파하니 나머지는 먼 바다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 기적 같은 대첩으로 정유재란(丁酉再亂)은 새 전기를 마련했다. 남해에서 서해로 북상하여 서울을 포위하려던 일본군의 기도가 여지없이 깨져버렸고, 조선 수군은 다시 제해권을 장악했으며, 무적함대로 거듭나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날 명량해협으로 들어온 적선은 133척이었지만, 해협 남쪽에는 200여 척의 본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선봉대 13척이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물길을 열면 그 즉시 해협을 통과하여 서해로 북상하기 위함이었다. 이순신은 적선 출현 보고를 받는 즉시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자 이내 적의 함대에게 포위당했다. 휘하 장수 모두가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 지레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선두에 나선 통제사 이순신의 대장선이 먼저 적선들에게 포위당했다. 이순신은 몸소 기를 휘두르고 전고를 울리며 독전했다.

“두려워 말라! 왜선 백 척이라도 우리를 당할 수 없다!” “짜라! 쉬지 말고 싸야 이긴다!” 화포수들은 쉴새 없이 천자포·지자포를 발사했고, 사수들은 빗발처럼 화살을 날렸다.

이순신은 겹겹이 포위한 적선 사이를 뚫고 손수 활을 쏘며 전투를 지휘했다. 그리고 영기(令旗)를 흔들며 뒤처져 있는 전선들을 불러냈다. 거제현령 안위(安衛)와 중군장 김응함(金應謙)의 배가 달려왔다. 이순신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안

위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친다고 어느 곳에서 살 줄 아느냐?” 안위가 급히 적진 속으로 돌격했다. “김응함아!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네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우게 하리라!” 김응함도 또한 적진 속으로 돌격했다.

이를 보고 있던 적군 대장이 휘하의 전선 2척으로 하여금 안위의 배를 공격하게 했다. 적선 2척이 안위의 배에 바짝 붙어 적병들이 개미떼처럼 배에 오르려고 악을 썼다. 그러자 안위와 그의 부하들이 죽을힘을 다해 창검과 몽둥이로 치고, 수마석 덩어리를 던지는 등 힘껏 싸우다가 그만 지쳐버렸다. 그런 모습을 본 이순신이 안위의 배 옆으로 기함을 몰고 가서 빗발치듯 포와 활을 마구 쏘아 적선 3척을 거의 다 섬멸했다. 그때 녹도만호 송여종(宋汝棕)과 평산포 대장 정응두(丁應斗)의 배 2척이 쫓아와 협력해서 적선들을 무찔렀다.

일본 수군 함대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전력이었지만 승세를 타고 일시에 쳐들어가며 화포를 난사하니 자욱한 포연 속에서 그 소리는 하늘과 바다를 울렸다. 우리 수군들은 쉴새 없이 함성을 울리며 화살을 쏘아댔다. 이와 같은 악전고투 끝에 마침내 적 대장선을 비롯한 적선 31척을 격파하고 나머지는 먼 바다로 격퇴시킬 수 있었다. 명량대첩의 으뜸가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순신의 비상한 통솔력에 있었다. 물론 13척의 전선을 튼튼히 정비하고, 수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운 덕분도 있었다.

그리고 의병과 피난민들이 우리 수군의 뒤에서 도움이 된 바도 적지 않았다. 또한 명량해협의 지형과 조류 등을 이용한 이순신의 탁월한 전략전술 덕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선봉장이 되



황원갑

- 분회 회우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어 포위된 채 승기를 잡을 때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전세는 이미 초전에 기울어버렸을 것이다. 그가 앞장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히 싸웠으므로 처음에 겁을 먹고 벌벌 떨던 장졸들이 싸움판에 뛰어들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순신의 출중한 리더십이었다. 원균(元均)의 칠천량패전을 되돌아보라. 아무리 전함이 튼튼하고 군사가 강하면 무슨 소용이라. 장수가 홀룡해야 한다. 장수의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순신은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돌격했다. 세계 해전사상 불멸의 승리로 기록된 명량대첩을 맞아 다시 한 번 이순신의 탁월했던 리더십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본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국이 시끄럽다. 호전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은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비상한 난국에 불세출의 리더십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이순신정신의 부활이 절실하다. 돌이켜보면 이순신의 적은 왜군만이 아니었다. 그는 왜적과 싸우기 전에 아군과 먼저 싸워야 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서 14개월 동안 피땀 흘려 육성한 180여 척의 전함과 수만 명의 수군이 원균의 한번 패전으로 전멸하다시피 했을 때, 국왕 선조(宣祖)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엉뚱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순신은 “아직도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하고 임금을 설득했다. 그리고 목숨이 아까워 도망치기에 바쁜 장수와 군사들의 동요도 진정시켰다. 또한 부하들이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지 않자 총사령관인 자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격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다.

반면, 당시 국가최고지도자였던 선조의 리더십은 어떠했는가. 한심하다 못해 엽기적이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왕권안보에만 병적으로 집착했다. 무비유환(無備有患)으로 임진왜란이

란 미증유의 재앙을 자초하다시피 했고, 백성을 버리고 피란가면서도 동서당쟁을 즐기다시피 했던 임금,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후궁들 배나 불리는 재주밖에 없는 너 같은 것도 임금이냐!”는 욕설과 돌팔매질을 당했던 선조였다.

선조의 형편없는 리더십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쟁 중에도 걸핏하면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이고 바른말하는 신하들을 내쫓았다. 조선군 장수들은 앞에서는 일본군과 싸우다 죽고, 돌아서서는 임금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당한 사람도 있었으니 그 대표적 경우가 바로 김덕령(金德齡)과 곽재우(郭再祐)였다. 선조의 성격은 비정상이었다. 자신이 적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었다는 사실에 콤플렉스도 있었다. 의심과 시기심이 많고 독선적이었다.

심지어는 아들인 광해군(光海君)에 의해 왕좌에서 밀려날까봐 의심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했던 참으로 엽기적 임금이었다. 그래서 정규군과 의병을 막론하고 당시 조선군 장수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순신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잠재적 라이벌로 여겨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귀중한 교훈을 주기에 미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재앙을 당해 망국의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결과 불과 40년 만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당했고, 다시 300년 뒤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다. 국가지도자는 부국강병(富國強兵)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외면한 채 내분이나 조정하다 보면 내우외환에 시달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절감해야 한다.

지금 대선에 목을 매고 달려드는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의 준엄하고 냉혹한 교훈을 되새기고 있을까. 그런 것 같지 않으니 참으로 걱정이 다. 국가의 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란 사람들은 여전히 방향각각을 잃은 채 좌고우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무지 무능한 정치지도자들에게 이순신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마이동풍(馬耳東風)에 불과한 것일까. 지금은 국가의 사활, 국민의 생존이 경각에 달린 절박한 위기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 공갈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패한 포용정책은 포기하며, 한미동맹관계의 강화가 절실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주]

16면에서 이어집니다.

마케도니아 역시 독립한 이유가 아리송한 나라다. 이 나라는 킬릴문자를 만든 킬릴형제와 테레사수녀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알렉산더대왕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했다가 아직도 그리스와 분쟁 중이다. 바다 같은 오호리

드호수가의 언덕 위에 있는 성 판텔레이몬수도원으로 올라가다가 신문에서만 읽었던 유고자동차를 몇 대 보았다. 80년대에 미국에서 현대 포니와 경쟁하다가 내전으로 좌절한 비운의 자동차다.

나를 동안에 발칸반도 6개국의 국경을 넘나든 우리는 다시 세르비아로 들어가서 경기장이 있는 중부 산악지대의 코파오니크로 갔다. 직행길이 있었지만

분쟁중인 코소보가 가로 막고 있어 먼 길로 돌아왔다. 이곳 산림지대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처음으로 남자 50세그룹 단체동매달을 땀다.

시상장에서는 감격적인 해프닝이 벌어졌다. 내가 흥을 돋우기 위해 MP3플레이어로 ‘강남스타일’을 틀자 우크라이나의 여자선수 한 명이 뛰어나와 ‘옴바는...’ 하면서 말춤을 추는 것이 아닌

가. 그녀는 다른 여자선수들을 불러내더니 우리를 향해 ‘한국 힘내세요!’ 하고 외치기까지 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이 그곳에 있었다. [주]

회우동정

가나다순

구청 워크숍등서 특강



곽찬호(일본섬연신문사 논설위원) 원로회우= 민주당 서울 광진구협의회 1박 2일 워크숍(9월 6일~7일·120명 참석)에서 ‘남북언어 이질화 통일의 걸림돌’을 주제로 특강. 9월 27일 오전 11시 성동구 보훈단체 운영위원 대상 (95명 참석) 정기특강.

제3회 백교문화상 시상



권혁승(백교문화원 회장·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회우= 10월 6일 오후 2시 강릉 경포 죽헌 한다리 사모정공원에서 최승학(대상), 이정경(최우수상), 김부조(시 부문 우수상), 오마리(수필부문 우수상)씨에게 제3회 백교문화상을 시상한다.

49회 대중상 영화제 집행위원



김 화(전 경향신문 편집위원·본회 전문위원)= 10월 30일 열리는 제 49회 대중상 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9월 19일 일간 경제지 이코노믹 투데이에 ‘사회통합을 위한 정면 승부를 찾습니다.’라는 칼럼을 시작으로 1주일에 한번씩 시사칼럼을 연재기로 했다.

춘천교대 6·25 참전용사 명패 받아



박기병(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사= 9월 19일 춘천교대 석우관에서 제1야전군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6·25 참전용사명패증정식 행사에서 육군참모총장의 6·25 참전축소명패를 받았다. 박 회우는 6·25 전쟁 때 춘천사범학교 재학중 학도병으로 포병 16대대에 입대, 참전했다.

조선일보 Why 페이지에 특별대담



손세일(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회우= 지난 8월 25일 자 조선일보 ‘Why’ 난에 이승만연구가 이한우 기자와의

특별대담. 이한우 기자는 손세일 회우를 가리켜 “역사의 관찰자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그리고 다시 역사의 관찰자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평했다. 손세일 회우는 2001년부터 10년 넘게 ‘이승만과 김구’의 원고를 매달 200장 가까이 월간조선에 기고해 오고 있다.

편집기자협회 48주년 공로상



이순기(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원로회우= 지난 9월 19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편집기자협회 48주년 기념식에서 한국편집기자협회 초대회장으로 한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편집기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순기 회우는 또 한국편집기자협회보 창간 45주년 특별호(2012년 9월 19일자) 6면에 특별인터뷰를 했다.

대한문인협회 장려상 수상



이학주(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회우= 지난 9월 16일 국회헌정회관에서 열린 대한문인협회 주최 전국 시인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물망비 앞 추모행사 주관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 원로회우= 앵커·원로 방송인들의 모임인 방우회회원 40여명과 함께 9월 20일 오후 2시 한국방송공사 앞에서 세워진 물망비 앞에서 일제말기 일본의 압제에 맞서 단파수신기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항일정신을 고취시키다 검거돼 옥사한 선배 방송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가졌다.

편집기자협회보 창간 45주 축하메시지



홍원기 회장= 9월 19일 발행된 한국편집기자협회보 창간 45주년 특별호 3면에 ‘미래보는 해안으로 정보화시대 대처를’ 제하의 축하메시지 기고.

본회 사무실 분위기 일신

홍원기 회장은 지난 8월 31일 본회 사무실에 대형 책꽂이 4개, 진열장 3개, 파일박스 3개, 6인용 소파 및 탁자, 대형시계 등 시가 150여 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기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제 캐비닛 등에 산재해 있던 각종 회무자료가 말끔히 정돈 되고 회원 저술문고도 새로 진열 돼 사무실 분위기가 몰라보게 일신되었다. (사진)



서진섭 회우 日대사관앞 단식농성

서진섭 원로회우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왕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고 위안부 소녀상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단식 농성을 했다. (사진)



서 회우는 이 서한에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왕이 직접 사죄하라고 한 말에 대한 시비 걸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을 전쟁이라도 할듯 트집잡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회우는 6·25 한국전쟁당시 학도병으로 북한군과 싸운 참전용사다.

본회 기우회 바둑모임 성황

대한 언론인회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지난 9월 21일 (목) 오후 2시 종로 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분기 바둑모임을 가졌다.(사진) 이날 모임에는 김윤석, 김세경, 문준호, 백환기, 이상우, 이성호, 이억순, 정기정, 주종환 회원이 참석, 밤 늦게까지 죽었던 말도 다시 살아나고 쌍립으로 연결됐던 돌도 끊어진다는 바둑의 오묘한 변화를 맘껏 즐겼다. 참석자들은 바둑이 끝난후 인근의 새 피맛골 골목에서 갈비 전골에 소줏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주종환, 백환기 회우는 아직도 쟁쟁한 젊은 시절의 주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특히 지병으로



고생하던 이상우 회우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위의 축하를 받았다. 다음 모임은 11월 하순에 예정된 연말 바둑대회로 가름할 예정이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진현 회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층 위원장실
연락처 : 3703-9290 (Fax : 3703-9216)
나용경 회우= 서울 도봉구 쌍문2동 56번지 삼익 세라믹아파트101동1046호
박석홍 회우= 010-398-2271
박정하 회우=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 세르빌아파트 B동 303호 (우463-858)
안중우 회우=서울 도봉구 창5동 826 한신휴프러스 101-1005(우 132-955)
이덕주 회우= 서울 강남구 개포1동 대창아파트 304-1206(우 135-241)
정서진 회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86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동 901호 (우138-797)

▶ 결혼 ◀

박화진 회우= 9월 23일(일) 12시 서울 방배동성당 아들결혼

▶ 부음 ◀

황원갑(전 서울경제 문화부장·소설가)회우= 9월 9일 모친상, 발인 9월 11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구본건 원로회우= 9월 13일 부인상

▶ 저서 보내주신 분 ◀

여영무 회우= ‘괴물제국 중국’ (도서출판 팔복원간·472쪽·값 18,000원)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강용식(10,11,12)	유용현(12)
구건서(12)	이구열(12)
김 현(10,11)	이문홍(9,10,11,12)
김양섭(12)	이병삼(9,10,11)
김 진(9,10,11,12)	이재원(10,11,12,13)
김한길(11,12)	정구중(10,11)
문 청(12,13,14,15)	최병요(11,12)
박미정(9,10,11,12)	한규남(9,10,11)
박응칠(12)	
송 정(9,10,11,12)	〈2012년 9월 20일
유무정(10,11)	현재〉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李榮一
· 인쇄인 鄭雲宗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2012 영국 The Banker誌 선정
한국 1위 세계 71위 금융그룹

기간, 금액 조건없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예금

KDBdream Account 연 **2.5%**
(세전 '12.7.18 현재)

복단지 가득 꿈을 '드림'니다!



연 **3.5%**
KDBdirect/HiAccount
(온라인 전용 상품)



고객에게
꿈을 드리고 싶은
KDB의 마음, 복단지



우체국 어디서나
입출금 수수료 없이
거래하세요

※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2-07-018호 (2012.07.18)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88-1500 www.KDB.co.kr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이율은 '12.7.18 현재 적용이율(세전)이며, 시장금리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ioneer Bank beyond Best, Moving on!



[착한대출] KDBdream Account로 조성된 자금은
기존 소호대출에 비해 0.5%이상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
청년창업, 프랜차이즈산업, 전통산업, 주택담보대출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외주대출] “착한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예스24) www.yes24.co.kr
인터파크 도서) book.interpark.com



절찬리
판매중

한국에 대해 이렇게 진심어린 사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인 일본인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대은(文化大恩)의 나라’ ‘형님의 나라’ ‘스승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 대은을 짓밟고 귀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귀국에 속죄할 것입니다.
최대의 예(禮)를 다하여 영원히 귀국과 우정을 맺고 귀국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결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로소 일본이 올바르게 번영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중에서

이케다 다이사쿠의 한국예찬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과 대담록, 한국에 관해 쓴 에세이와 시,
그리고 한글, 고려청자, 한복 등 한국미(韓國美)에 대한 예찬을 담은 글 등을 엮은 책이다.
또한 이 책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낱알이 밝히는 등, 올바른 역사관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 출판사 (주)조선뉴스프레스 | 면수 216면 | 판형 120×190(양장제본) | 발행일 2012년 7월 31일 | 가격 12,000원 | ISBN 978-89-91491-80-9 03040